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호국보훈의 달에 애국심을 기르자

6월은 여름철로 들어가는 달이고 호국보훈의 달이며 6월 6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6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 요인, 정당 대표 헌법기관장 주요 인사와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 참석해 거행한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자는 뜻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보은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기념일이다.

국립묘지에는 전국 각처에서 오신 유족들이 가신님의 묘를 참배하고 명복을 빈다. 현충일에 우리는 호국 영령의 묘 앞에서 호국 영령의 유업을 이어받아 기필코 이 땅에서 잔혹한 공산당을 몰리치고 남북통일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다.

현충일이 공휴일로 됐는데,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고, 이날만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송고한 호국 정신 위훈을 추모해야 한다.

현충일은 단순히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켜지는 것보다 국민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

의 화합을 다지는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남북이 분단됐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돼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으며 국토가 폐허가 됐지만, 6·25 전쟁은 종전 아닌 휴전상태로 올해 73주년을 맞이하도록 통일을 못 하고 긴장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침략자 북한 공산당들은 적화 통일전쟁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온 인류가 싫어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몰수했으며, 천안함 피격의 만행을 저질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반성은 없고 남침을 하겠다고 으박지르고, 올해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한다.

우리는 휴전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우리는 슬기롭게 물리쳐 나라를 지켜왔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애국선열이 목숨을 바쳤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와 북한 공산당의 만행을 전쟁 역사자료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알려야 할 것이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는가의 역사적 산 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일깨워 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중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호국 영령들 은공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돼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북한을 설득해 평화적 남북통일을 하려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도왔지만, 북한 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천안함 사건에서 보여준 것이다.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 같은 침략행위를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은 없어야 하고 전쟁을 없애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반성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국민이 화합해 국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후손으로서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독자기고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기

이 나 래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사

여름철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천 564명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5세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다. 이처럼 온열질환은 중,노년층 남자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체온이 40℃이상,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을 동반,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심한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메스꺼움,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려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응급조치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몸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시원한 장소로 옮겨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응급조치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하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수칙은 첫째,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하고 헝클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며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